學生生活硏究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004. Vol. 25, No. 1, 1~2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할

박 태 수*

〈 목 차 〉

Ⅰ. 서 론
Ⅱ.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Ⅲ.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Bowen의 가족치료적 접근
1. Bowen의 가족치료의 주요 개념
2. Bowen의 가족치료 과정
Ⅳ.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세대적 접근
Ⅴ. 가족구성원의 역할
참고 문헌
Abstract

Ⅰ. 서 론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감정체계에 영향을 받는다.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부모의 감정체계로부터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간다. 성장하는 아동들은 가족과 정서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으며, 분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형태주의 심리학자인 레빈(Lewin, K. 1942)은 인간의 행동을 개인과 환경의 함수관계로 설명한다. 그는 행동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사실에 영향을 받으며, 심리적 사실은 개인의 전체적 상황으로서의 생활공간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활공간은 개인의 심리적 사실이 변하면 전체적으로 재배치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 장(psychological field)이라고 하였다.

가정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심리적 장이며,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행동에 지대한 영

*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가족관계는 양육 및 지지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고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최정호(2002)는 가족관계가 강력한 고통의 근원이 될 때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아동들이 양육자에 의해 불안과 두려움을 겪어야 하고, 구타당하고, 굶주리며,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기타의 형태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불화, 이혼, 경제적 빈곤, 편부나 편모의 상태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원치 않았던 아이의 출생, 문제아이 등 다면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자일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노정윤(1994)은 아동학대예방과 대책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로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양육방법을 교육시켜야 하고, 사회보장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시설을 마련하며, 부부간의 불화를 막기 위한 가족기능 강화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여 각종 사회단체에서 교육 및 상담을 하며, 시설아동, 결손가정아동, 가출아동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요인을 찾아 적극적인 치료개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의 초점을 아동의 특성이나 부모의 특성, 그리고 가정의 특성에서 더 나아가 학대자의 부모까지 포함하는 다세대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행위동기는 전생으로부터 전해 받은 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자신의 과거로부터 쌓아온 누적된 행위의 결과가 지금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황학구 역, 2003). 이와 관련된 가족적 치료가 바로 Bowen(1978)의 다세대중심가족치료의 접근이다. 즉 자녀들의 자아분화 수준은 현재 속해 있는 핵가족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보고, 가족의 투사과정에서 자란 자녀의 분화수준은 부모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가족의 투사과정에서 벗어난 자녀는 부모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피해자와 학대자, 그리고 그 외 가족구성원들의 감정적 융합과 자아분화수준을 규명하고, 구성원 각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즉 치료과정에서 가족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며 가족상호간의 이해와 기능적인 애정관계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주제의 목적은 아동학대의 발생원인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Bowen의 가족치료적 접근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사례를 부모중심의 다세대적 치료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다.

Ⅱ.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본 주제에서는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을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 그리고 가정의 특성과 다세대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을 아동 자신의 발달 단계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문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대 대상이 되어온 아동은 미숙아, 정신지체아동, 장기질환아동, 지체아, 기형아, 미혼모 아동, 입양아, 많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아동, 원하지 않는 자녀, 부부관계 또는 가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 출산전후 가족여건이 나빠진 상태에 있는 자녀, 심히 고집스럽게 울거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아기 등은 부모의 애정과 정성이 있는 보살핌과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1994, 노정윤). 아동이 의도적으로 학대를 유발할 수는 없겠지만 피학대 아동에게는 대부분 학대를 유발하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이러한 행동이 학대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루기 힘든 아동의 기질과 품행 문제는 부모에게 긴장을 초래하여 부모의 역할을 일관성 없이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런 특성은 학대를 유발하는 부모의 특성보다 아동의 문제로 인해 학대받게 되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의 생활습관, 출생상황, 기질정서는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방임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노정윤(1994)은 이상과 같은 아동의 특성들이 어느 정도 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성학대에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방임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아동의 특성이 아동학대자와 가정내의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 작용하여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아동학대 유발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아동에게 '문제가 있어서', '맞아야만 말을 듣는' 등과 같이 아동이 가진 기질이 학대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관점은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동 학대에는 아동의 특성이라는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유형별 상관을 보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구타 등의 신체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피학대아동이 받는 학대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특성을 보면, 피학대 아동의 부모 및 양육자들은 특정한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기보다는 걱정 수준이 높거나 기능장애, 부적절한 부모역할이나 양육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아동학대자들을 보면, 대체로 아동기 학대경험 및 부정적인 인지양식, 성격과 정서 상태 및 기질의 문제, 알코올 중독, 빈약한 부부관계를 가진 자들이 많음에서 알 수 있다. 학대자들이 유아기 때 학대받은 경험은 그들에게 학대 잠재성을 갖게 하여 자신의

아동들을 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하거나 아동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아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한계를 나타낼 수 있다. 학대자들의 이러한 성향은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말로 타이르기보다 분노나 과민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기능장애로 인한 그들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와 학대부모의 특성으로 홍강의(1989)는 학대를 유발하는 가족역동으로서 가족 내에서의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의 빈도, 부부갈등으로 인한 자녀에 대한 투사나 희생양, 대가족이나 아동수가 많은 가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부부가 상호간에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때 자녀들에게 의존하고 그들로부터 격려와 위안과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Morris와 Gould는 의존적 역할이 역전되었다 하여 "역할 역전"이라고 묘사하였다. 이러한 부모들은 어린 자녀에 대하여 과도한 기대를 요구하면서도 자녀의 욕구, 제한된 능력, 무력감등은 무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와 요구가 성취되지 않았을 경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학대를 유발하게 된다(노정윤, 1994, 재인용).

한편 아동학대의 발생요인으로 가정환경적 측면을 보는 연구들이 있다. Faller(1981)는 가족요인을 부모의 결탁, 희생자, 양부모, 재구성된 가족, 편부모, 확대가족이 아동학대의 경향이 많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가 받았던 양육방식, 체벌에 대한 문화적 태도 등으로 아동을 학대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Gil(1971)에 의하면 하층부류에 있어 이러한 사회경제적 압박감은 자기 통제에 필요한 부모의 심리적 기제를 약화시켜 좌절감을 가져오게 하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무직은 학대행위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는데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결핍, 좌절과 무력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투사되어 폭력을 자극하고 학대와 방임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가족집단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들에 의하면 가족단위의 행동은 가족의 정신이나 사회적 양상, 개인의 생활면에서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며, 가족구성원의 역할은 서로 호혜적이고 상호의존적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은 갈등의 해결이나 방어형태에 있어서 자아목적과 가치관에 맞는 가족생활의 측면들과 선택적으로 상호작용 한다고 본다. Steinmetz(1974)에 의하면 부부갈등의 해결을 위해 신체적이든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가정은 아동양육에도 같은 전략을 쓴다고 한다. 아동에 대한 체벌은 배우자에게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것 보다 사회적으로 더욱 쉽게 용납되므로 아동학대는 공격성이 배우자에게서 아동으로 전이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즉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나 폭력의 사용이 부모-자녀의 관계로 옮겨져 표면화 된 것이다(노정윤, 1994, 재인용).

Bowen(1963)의 가족치료 이론은 개인의 증상은 가족 내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보았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어떤 것이 과거와 현재의 역기능적인 패턴을 만들어 내고 유지시키는가

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핵가족뿐만 아니라 원가족과의 관계 망까지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 곁을 떠나 독립적으로는 살지만 부모와의 미해결 된 정서적 감정적 반응은 자신들의 핵가족 안에서 또다시 반복하는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은 아동과 부모, 핵가족과 원가족의 구성원들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생기는 복합적인 심리적 환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Bowen의 가족치료적 접근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은 아동과 부모,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역동적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동적 관계의 역기능적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Bowen의 다세대적 치료의 접근이 필요하다.

1. Bowen의 가족치료의 주요 개념

Bowen(1976)은 핵가족의 문제를 세대를 통해서 접근하는 주요 개념들로 자아분화와 융합(differentiation of self and fusion), 삼각관계(triangles), 핵가족의 정서과정(nuclear family emotional process), 가족투사과정(family projection process), 다세대전달과정(multigeneration transmission process), 자녀의 위치(sibling position), 감정적 단절(emotional cutoff)로 설명하였다.

1) 자아분화와 융합

Bowen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긴장과 불안감으로 강하게 결속(togetherness)하는 융합(fusion)의 경향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자율성과 개별성을 지향하는 분화(differentiation)가 있다고 했다.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는 개인이 감정과 정서를 지적 체계인 사고에 의해서 적절하게 잘 통제하고 분별하는 능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외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며 화를 내고 큰 소리 치며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감정반사 행동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감정반사 행동을 지적 사고에 의해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화가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감정체계와 지적 체계의 구별이 어려워 가족체계의 정서에 쉽게 융합한다.

개인이 가족 내에서 감정적으로 상호의존 혹은 감정의 상호관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의 감정적인 과정을 개인분화라고 한다면 개인의 융합은 가족 내에 감정적으로 상호 고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가족 안에서 기능적 융합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감정에 지배받게 되는 경우로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에서 발생되고 얼마간 지속적이 된다.

감정과 사고의 분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구분할 수 없는 개인은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감정적으로 융합된 개인은 자신의 지적 체계 능력을 상실하므로 좀 더 많은 선택의 자유와 의지를 상실한다. 가족 안에서 융합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악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특히 남성들의 폭력적, 공격적인 행위들이 문제가 된다. 가정폭력은 종종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기도 한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폭력의 규칙과 양상을 이어 받음으로 스트레스와 불안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고 자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 다시 폭력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다.

대체로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개인은 자아개념이 아주 약하고 자신의 욕구감정이 희박하며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 감정에 아주 지나치게 반응한다. 반면에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 믿음, 신념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신념, 가치를 그대로 존중하며 수용할 수 있다.

2) 삼각관계

Bowen은 삼각관계를 가족관계 안에서 가장 불안정한 관계체계로 보았다. 실제로 삼각관계가 불안이나 긴장,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가족의 갈등문제를 더욱 무감각하게 하고 가족들의 감정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에서는 부모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갈등관계일 때 자녀 중 하나가 쉽게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한 상태이고 부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하면 자녀는 부모를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삼각관계에 휘말린 자녀는 항상 부모의 불안과 문제를 생각하고 자신의 발달과 자신의 욕구충족은 뒤로하고 융합된 삼각관계에서 부모의 근심걱정과 욕구에만 맞춰야 한다. 자녀는 증상을 초래하고 증상은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녀의 증상이 가족의 역기능적인 체계를 유지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Bowen은 가족의 삼각관계를 해체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보았다.

3) 핵가족의 감정체계

핵가족의 감정체계는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서로 강한 결속력을 나타낸다. 자신의 원가족에서부터 자아분화가 안 된 사람은 결혼을 하여도 부부관계에서 강한 융합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

서 결혼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의 분화정도와 비슷한 수준의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부부간의 강한 융합은 서로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할 수 없으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서로 비난하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외부의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감정적으로 쉽게 단절하려는 경향이 있다. 융합에 의한 부부의 문제는 자녀에게 다시 투사되고 역기능을 초래한다. 이러한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원가족과 감정적인 단절을 회복하며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4) 가족의 투사과정

가족의 투사과정은 가정에서 부모의 심한 스트레스나 위기상황, 갈등과 싸움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 이를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가족의 투사정도는 부모의 자아분화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의 불안감,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 기대와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직장 일로 하루 종일 바쁘고 집안 일이나 아내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과 멀어질수록 더욱 자기 자녀에게 모든 에너지와 애정을 쏟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결국 부부관계 내에 불만족한 감정을 자녀를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사과정에서 자란 자녀는 결국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자아분화수준도 낮다.

5) 다세대 전달 과정

다세대 전달과정은 자녀들의 자아분화 수준이 현재 속해 있는 핵가족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본다. 가족의 투사과정에서 자란 자녀의 분화수준은 부모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가족의 투사과정에서 벗어난 자녀는 부모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를 나타낸다. 부모는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는 가족들의 보이지 않은 투사유산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떠한 유산을 자녀에게 전수할 것인지를 탐색해야 한다.

6) 자녀의 위치

Bowen은 자녀들의 위치와 불안을 분화수준과 연관시켰다. 이러한 연관은 자녀의 위치가 어떻게 가족투사과정의 대상이 되는지, 또한 개인이 결혼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며, 가족치료를 할 경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불안감에 의한 자녀의 위치에서 보면, 장남이나 장녀는 불안해지면 더욱 고집스럽고 권

위적이며 규칙에 강한 집착을 보인 반면, 막내들은 불안하면 당황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자아분화수준과도 연관시켜 보면,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은 장남이나 장녀는 부모와 강한 감정의 유대관계를 가지며 삼각관계에 빠질 위험이 높아 자아분화수준이 떨어질 경향이 많은 반면, 부모의 기대수준이 낮은 자녀는 삼각관계에 빠져들 위험이 적고 부모와의 감정적인 유대도 약한 편이어서 오히려 독립적이고 분화가 잘되고 분화수준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자녀의 위치는 또한 결혼해서 부부관계와 투사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남이나 장녀는 결혼 후 부부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만의 독립성이 약해서 감정적으로 쉽게 반응하며 갈등 시에는 부부관계가 불안정하여 자녀가 있다면 다시 자녀를 부부갈등의 기제로 이용하여 부부관계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반면에 차남이나 막내가 결혼을 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의하여 행동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자녀를 끌어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려 하며 안정된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간다고 했다(Hall, 1990).

7) 감정적 단절

감정적 단절은 세대간에 자신의 부모와의 감정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부모를 멀리하고 회피하며, 대화 또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정서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며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전혀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날 기회도 별로 없으며 정서적으로 단절한 경우이다.

이러한 감정적 단절은 부모가족과의 융합의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부모와의 감정적인 융합을 이룬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강한 두려움 때문에 감정적 단절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하면 또 고립과 소외에 대한 불안으로 부부간에 감정적으로 강한 융합을 시도한다. 특히 자신의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벗어났지만 다시 자신의 핵가족에서 정서적으로 융합하므로 부모와 함께 있었던 문제를 반복한다. 부모의 감정적 단절은 세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 관계에서 감정적 단절이 강하면 그만큼 융합이나 미분화의 정도가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2. Bowen의 가족치료 과정

Bowen의 치료과정은 가족들이 감정적인 융합에 의한 불안감과 가족내의 상호간에 얽혀 있는 삼각관계의 탈피를 시도하는데 있다. 가족치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불안과 긴장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키고 자아분화수준을 높이느냐에 관심을 둔다.

가족 가운데 좀 더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을 어느 정도 치료하여 변화된 행동을 하면 다른 가족들도 비슷하게 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치료과정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가족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전체 가족의 삼각관계도 깨뜨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체계에 원래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개인의 변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치료자는 다세대 중심적인 접근에 초점을 두고, 핵가족의 문제는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융합이 부모에게 전달되었고 부모는 이것을 다시 자녀에게 투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치료과정에서 원가족에 대한 확대는 필수적이며 부모와 조부모의 단절된 감정과정이나 삼각관계를 해결함으로써 자아 분화수준을 높이고 핵가족에서의 재반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치료적 접근은 핵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원가족과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그 역할의 중심은 실제로 아동학대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게 있다.

Bowen의 가족치료과정의 4단계는 다음과 같으며, 치료자(상담자)가 전과정을 주도적으로 돕는다.

1) 1 단계 : 가족과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운다.

치료자는 내담자와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 불안의 정도를 파악하며 가계도를 작성한다. 내담자 가족들의 문제에 대한 다세대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시도해 보았던 해결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해결방안들이 어떤 점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는가, 처음 가족의 접촉은 누가 누구와 하도록 계획을 세울 것인가? 부인만, 아니면 부인과 남편을 함께, 또 전체가족을 모두 참여시킬 것인가, 언제쯤 원가족의 부모를 참여시킬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치료자는 내담자 가족을 돕는 치료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중요시한다.

· 가족 안에서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개인적인 신념, 행동 원칙을 정의해야 한다.
· 새로운 신념에 기초하여 책임있는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예견해야 한다.
· 피해자의 새로운 행동에 대한 가족체계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 가족체계에 대한 중립적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2) 2 단계 : 예상과 연습

치료자는 가족들이 반복되는 가족의 경험이나 가족원들의 행동 패턴을 통찰함으로 해결방안을 찾

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대처방식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해 본다. 자주 짜증과 화를 내는 부인에게 남편이 지금까지 해왔던 회피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부인의 말을 잘 경청한다고 예상해 보고 부인의 반응은 어떨지 가족들과 미리 치료장면에서 연습해 본다. 연습하는 동안 가족들은 자신들의 불안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다루는 방식을 터득하도록 한다. 충분한 연습을 한 후에 실제로 가족들이 행동하도록 돕는다.

치료자는 가족들이 개인의 감정표현과 언어들을 객관적 입장에서 보고 그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적절한 질문을 한다. 현재의 문제가 다세대의 전수로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투사하고 있는지, 투사하므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교육한다.

3) 3 단계 : 인식의 변화

가족들이 자신의 행동과 언어패턴에 대한 강한 인식의 틀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단계이다. 치료자는 가족구성원 개인의 불안감은 낮은 자아분화수준과 관련이 있으므로 감정체계에 대한 지적체계의 이해를 도와준다. 가족들과 대화를 통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찰, 가족과의 상호관계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남편이 화를 자주 낸다면 ① 화를 내는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고, ② 화가 난 후의 자신의 느낌은 어떠했는지? ③ 자신의 감정에 대한 느낌을 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④ 화가 난 후의 느낌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를 원하는지? ⑤ 화가 난 감정 이면에는 원하는 무엇이 있었는지? ⑥ 화내는 감정을 또 어떻게 하고 싶은지? ⑦ 화를 내고 행동한 후의 나 자신의 모습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⑧ 죄책감에 빠지는지? 등의 탐색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탐색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화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했던 반사행동을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바뀌게 된다.

가족들이 삼각화에 의한 투사과정, 다세대 전수과정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핵가족 안에서 관계성을 인식하도록 순환 질문으로 상호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어 부인에게 "당신의 남편이 자주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행동이나 표현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화만 내는 남편을 비난만 하는 방식에서 한 번쯤 자신의 행동이나 언어표현이 남편의 화를 더 조장할 수 있다는 관계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다세대를 통한 가족의 전이관계가 현재 나의 가족에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하게 하므로 세대간의 과정을 인식하도록 한다. "당신의 부모 가운데 누가 당신과 비슷한 행동을 했으며 이런 행동을 당신자녀에게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는 "당신의 원가족에서 이루지 못한 무엇을 지금 자녀를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은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원가족과 자신 그

리고 자녀를 연결하는 관계 형태를 이해하게 하는 질문이다.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던 가족의 투사과정이 화를 내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감정적으로 단절하는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탐색할 수 있다.

4) 4 단계 : 변화를 체험하는 단계

3단계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제 피해자와 모든 가족들은 각기 변화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해 나갈 수 있으며 각자의 목표설정과 이행이 가능하다. 치료자는 가족들이 가족정서과정과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며 가족상호 간의 이해와 기능적인 애정관계로 발전하도록 돕는다. 가족들은 어느 정도 변화된 과정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가족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방식, 가족의 새로운 풍습을 시도해 보거나, 일의 분담화 등 가족들이 변화에 노출되는 체험을 시도한다. 내담자는 변화된 체험으로 더욱더 분화된 자기 감정표현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고 자신의 신념에 일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

Ⅳ.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세대적 접근

여기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접근으로 가족구성원간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아동학대 사례 두 편을 피학대자와 학대자, 그리고 그외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사항을 사례개요, 개인력, 가족력, 가족기능 및 가족체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치료과정에서는 가족 전부를 치료에 참가시키지 않아도 가족 중 한 사람이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지면 가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본다. 치료적 접근은 피해자의 문제 증상보다 가족의 감정체계가 문제라고 보는 데서 출발하므로 가족의 고질적인 감정체계와 심각한 삼각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인사례를 중심으로 Bowen의 가족치료 4단계를 적용함으로써 이 사례가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치료적 접근에서 고려할 점은 대체로 아동학대가족의 가족구성원 자체가 긍정적 삶의 기능을 상실한 가족이므로 그들 각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료자가 가족구성원들의 자아분화 및 융합의 정도, 삼각관계, 원가족과의 감정체계, 자녀의 위치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적절한 조정자가 될 때 가능하다. 여기서 가족구성원이란 학대자와 피학대자, 그리고 이들과 함께 호흡을 나누

며 직 · 간접적으로 학대자 또는 피학대자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치료자는 이러한 가족구성원에 개입하여 구성원 개개인이 상호 역동적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를 도와야 할 것이다.

사례 1 : 만성 알코올 중독 모에 의한 아동 방임

① 사례개요

다음사례는 Ct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1996년경부터 시작된 의식주, 교육부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 아동방임 사례이다. 방임된 아동들에게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후유증이 본 사례의 아동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동들이 장기간 방임되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발육부진, 위축된 행동이 관찰되며, 아동 중 일부는 가출, 음주 및 흡연, 혼숙, 임신, 폭력 등의 비행문화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② 개인력

· Ct부(남, 43세, 가명 : 김춘식)

Ct부는 1996년경부터 여러 차례 가출을 하였고, 1998년 가출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가출전후에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며, 마취상태로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하였다.

· Ct모(여, 41세, 가명 : 강영희)

Ct모는 1996년경 Ct부의 가출을 전후하여 음주를 하기 시작되었으며, 2000년 12월 신고접수 당시 알코올 중독상태로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알코올 중독으로 내과적 질환(갑상선, 심장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신과 · 내과 입원치료를 한 적이 있다.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 무단 외출을 하여 술을 마시고 다른 환자와 자주 싸움을 하여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병실을 불결하게 사용하여 강제 퇴원조치를 당한 적이 있다. 또한 음주문제로 Ct외조모를 비롯한 가족들과의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현재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많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Ct들에 대해서는 양육의사를 표현하지만 자신의 음주문제로 인해서 Ct들이 교육적 · 물리적으로 방임되고 있으며 양육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Ct1(여, 19세, 가명 : 김미혜)

Ct1이 어렸을 때는 외가에서 자랐으며, 외가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학교 생활도 문제없이 성실하게 잘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96년 외조모, 외숙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활하였다. 성격은 우유부단한 편이어서 가정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 못하였고 Ct2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2000년 Ct모가 생활비를 음주에 모두 써버려서 학비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Ct1은 학교를 장기간 동안 무단결석을 하게 되어 퇴학조치 되었다. Ct1은 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나 학교측에서는 주거가 안정될 때까지 복학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Ct2(여, 17세, 가명 : 김정희)

Ct2는 비행성향이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으며, 1999년도에 한 친구를 교외에서 집단구타한 문제로 입건되었다. 이 사건이후 학교를 무단 결석하였으며 2000년 12월 28일 조사당시 퇴학 처리된 상태였다. 가출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3~4명의 친구(이성친구도 포함)들을 집으로 불러서 함께 혼숙을 하곤 하였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2~3회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주의를 받지만 주위의 개입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본 센터의 개입에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며, 비협조적이다.

· Ct3(여, 16세, 가명 : 김미향)

Ct3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이며 제주도 대표수영선수로 대회에서 몇 차례 입상을 하였다. 수영연습에 열의를 보이며, 학교생활도 성실한 편이다.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수영선수로 입학이 확정된 상태이다.

· Ct4(여, 14세, 가명 : 김영은)

Ct4는 현재 중학교 1학년으로 외모는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작고 왜소한 편이다. 특별한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으며 온순하고 차분하다. 학교를 성실히 출석하며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자 한다. 그러나 학교성적은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편으로 기초과목에 대한 실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보인다.

· Ct5(남, 13세, 가명 : 김정호)

외모는 영은이와 마찬가지로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작고 왜소한 편이다. 학교는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출석을 하나 읽기, 수리과목에 대한 기초실력이 떨어져서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성격은 온순하나 Ct모와 분리된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주위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대응하며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③ 가족력

Ct부는 양자로 입양되었으나 빈곤하여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였고, 형제가 있기는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Ct외조모의 진술에 의함)

Ct모는 청소년기에 가출을 반복하였고, 그런 생활 중에 Ct부를 만나 연애 결혼하였다 Ct 외가측의 반대가 심하였으나 Ct모가 동거 중에 Ct1을 출산하여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여 결혼하게 되었다. Ct부의 경우 결혼 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1995년경 Ct모와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1996년경에는 일시적인 가출이 반복되었다. 1998년까지는 가출하였을 때도 간혹 집으로 찾아와서 Ct들에게 밥을 사주기도 하였으나 1998년경 가출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Ct외숙모가 2000년 9월경 Ct부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으며, 이때 Ct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여 며칠 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으나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Ct부가 가출한 후 Ct모의 음주문제가 점차 심각해졌고, 현재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상태다. 이로 인해서 Ct들에 대한 일체의 양육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가족기능 및 가족체계

본 가족의 경우 가족내 분위기가 지지적이고 응집력이 강하다. 그러나 장기간의 Ct모의 알코올 문제로 인해 Ct들의 정서적 ·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여서 가족들 전체가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이다. 또한 Ct 및 Ct모가 알코올 중독이 병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가족전체가 외부자원에 의존적이며 문제해결방식이 소극적이다. 현재 Ct는 가족 내에서 부모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Ct1과 Ct2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와 주거비용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 활동을 대신하고 있다.

가족 내 응집력이 강하여 쉽게 가족이 분리, 해체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가족 응집력과 지지적인 가족분위기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Ct3, Ct4, Ct5의 학교 생활이 양호하고 Ct1 또한 학업의 지속을 희망하고 있다. Ct들의 학업 의지는 방임이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당면한 가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Ct부는 1998년 가출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Ct모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다. 오랜 기간동안 Ct모의 음주행동이 계속되어서 Ct들이 무력해져 있다. 또한 Ct모 자신도 음주문제를 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나는 언제든 술을 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Ct들 또한 Ct모의 음주행위가 문제라고 생각

은 하나 병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Ct모의 음주습관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가족내의 비합리적인 신념들과 왜곡된 가족응집력이 Ct모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Ct들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 Ct모의 음주행동으로 인해서 내적인 좌절과 분노,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Ct3, Ct4, Ct5의 경우 학교 생활이 양호한 편이며 현재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Ct1의 경우에도 미약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 전체가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적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 **다세대적 치료 접근**

① 학대자 : Ct모

△ 해석 : Ct모는 청소년기에 가출을 반복하였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연애결혼을 함으로써 부모와의 감정적 관계 단절을 시도하였으며, 원가족과는 감정적 미분화상태에 있다. 그 결과 부부관계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남편과 갈등상태가 지속되어 별거상태에 있다.

Ct모는 친정부모와의 감정적인 융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감정적 단절을 통해 자신의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벗어났지만 다시 자신의 핵가족에서 정서적으로 융합하므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반복되었다

△ 치료 : Ct모의 내면에 뿌리 박힌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역할극을 통해 정화시키며, 원가족과 남편과의 감정적 융합 및 자아분화수준을 규명함으로써 그러한 감정이 피학대자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② 피학대자 : Ct1 ~ Ct5

△ 해석 : 가족관계에서는 부모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갈등관계일 때 자녀 중 하나가 쉽게 삼각관

계를 형성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한 상태이고 부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하면 자녀는 부모를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삼각관계에 휘말린 자녀는 항상 부모의 불안과 문제를 생각하고 자신의 발달과 자신의 욕구충족은 뒤로 하고 융합된 삼각관계에서 부모의 근심걱정과 욕구에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증상을 초래하고 증상은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녀의 증상이 가족의 역기능적인 체계를 유지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자아분화수준과도 연관시켜 보면,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은 Ct1은 부모와 강한 감정의 유대관계를 가지며 삼각관계에 빠진 상태여서, 자아분화수준이 떨어져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 못하거나 눈치를 살피며, 학교도 장기간 결석하여 퇴학 조치된 상태이다. 그리고 Ct2는 Ct모와의 감정적인 융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 단절을 통해 Ct모로부터 독립하고자 가출을 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반사회적인 비행만을 반복하게 되었다. 반면에 부모의 기대수준이 낮은 Ct3와 Ct4는 삼각관계에 빠져들 위험이 적고 부모와의 감정적인 유대도 약한 편이어서 오히려 독립적이고 분화가 잘되어 학교적응도 잘하고 있다. 그러나 Ct5는 남자아이로서 장남은 아니지만 부모의 기대가 크지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부모와의 감정적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대체로 자아분화수준이 낮아 자아개념이 약하고 자신의 욕구감정이 희박함으로 Ct모와 주위 사람들의 말과 태도 감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 치료 : Ct1~Ct5는 모두 Ct모의 자녀로서 방임적 피학대자의 입장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 학대자인 CT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아분화수준을 높여주어야 한다. 모든 피학대자인 자녀들이 부모의 감정체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Ct3와 Ct4는 부모의 감정체계로부터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와의 정서적인 관계에서 자아분화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개별치료를 하여 Ct1, Ct2, Ct5가 Ct모와의 감정적 융합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례 2 : 알코올중독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입은 아동

① 사례개요

다음사례는 한 가장의 알코올 중독과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다세대간의 학대로 인해 재연된 아동학대 사례로서 다양한 기관의 통합적 접근과 장기적인 서비스 실시가 요구되는 사례이다. 또한 치료 대상자로서 학대의 피해자인 Ct뿐만 아니라 학대의 주체이며 알코올 중독자인 Ct부도 치료의 대상자로서 접근해야 하며 해체위기에 있는 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Ct부는 Ct모와 98년 이혼 이후 Ct1,2에 대한 구타를 시작하였다. 특히 Ct부는 술만 마시면 Ct1을 가위로 찌르거나 프라이팬 등으로 구타하였다. 2000년 가을, 소주병으로 Ct2의 머리를 때리거나 사라봉 절벽으로 Ct1,2를 데리고 가서 '함께 죽자'는 등의 협박을 하거나 옥내의 장롱 안에 농약을 숨겨놓고 Ct1,2에게 먹이려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

Ct고모가 Ct부를 2000년 경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아동복지법 개정 이전이었으므로 훈방조치 되었다고 한다. 이 후, 2001년 8월 23일 Ct부는 술을 마시고 대문과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Ct1에게 가위를 휘두르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이에 Ct고모집으로 Ct1,2는 피신을 하였으며 Ct고모가 Ct부를 본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였다.

② 개인력

· Ct부(남, 37세, 가명 : 정민호)

1964년 제주도 출생. Ct조부가 심각한 알코올 증세가 있었으며 Ct부를 매우 싫어하고 미워하였다고 한다. Ct조부는 Ct고모들이 잘못을 하면 Ct부를 구타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Ct조부의 구타를 피해 Ct부를 남의 집으로 피신시키고 음식을 갖다 먹인 적도 있었다고 한다. Ct조부에 의한 신체적 · 정서적 학대를 장기간 받아온 피학대 개인력이 있다. Ct조부도 음주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였으며 Ct부와 적대적인 관계를 자주 보였다고 한다. Ct조부 생존시 Ct조부도 장성한 Ct부로부터 잦은 구타를 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연탄집게로 Ct조부를 찌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Ct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1985년경 서울에서 취업을 하였으며 Ct모를 만나서 결혼하였다. 결혼 이후 제주도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Ct조모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서울에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둔 후 Ct모와 함께 제주도로 왔다.

이 후 Ct모는 97년 가출 후 98년 Ct부와 이혼하였다. Ct부는 이혼문제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현재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음주후의 학동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를 겸하고 있다.

· Ct1(15세, 남, 가명 : 정민수)

1987년 제주도 출생, 현재 제주시 ○○중 2년에 재학 중. 부모의 이혼 및 Ct모의 가출이후 Ct부의 음주이후의 구타대상이 되고 있다. Ct부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지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98년부터 3여년 동안 Ct부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받아왔으며 Ct막내고모에게 이를 알리거나 고모집에 Ct2와 함께 피신을 하기도 하였다.

Ct1은 야윈 체격에 말이 없었으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옆구리와 손바닥 측면에 가위로 긁힌 자국이 있었다. Ct1,2는 현재(02. 9. 3.) Ct부가 학교에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Ct고모집에 피신 중이었다.

Ct부는 술만 마시면 뚜렷한 이유 없이 Ct1을 구타한다고 한다. 01년 8월 13일 바닷가에 가기 전날 밤, 옷걸이로 Ct1을 구타하여 발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가위로 Ct1의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와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Ct1의 학교 인근에 Ct부가 찾아와서 Ct1을 끌고 집으로 가서 구타한 적도 있다고 한다.

· Ct2(11세, 여, 가명 : 정민영)

Ct2는 90년 7월 제주도 출생으로 이후 줄곧 제주도에서 생활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5년에 재학중이며 성적은 중상정도이다. 성격이 Ct1보다 강하고 자기표현을 적절히 하는 편이다.

Ct2는 야윈 체격에 Ct1보다는 활달한 성격이다. Ct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Ct모가 가출한 이후 1개월에 2~3회 정도의 구타를 당하였다. 01년 5월 경 Ct부가 유리를 깨고 Ct1을 무차별 구타를 한 이후 술이 들어 있는 술병으로 Ct2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다. Ct2는 술병이 깨진 틈을 타 Ct고모집으로 피신을 하였다. Ct부는 재떨이로 Ct2를 구타하거나 솥으로 Ct1의 팔을 때려서 깁스를 하는 부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Ct부가 집에 있기 때문에 고모집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Ct부의 고발이후 구급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 Ct조모(70세, 여, 가명 : 김현자)

1927년 제주도 출생으로 슬하에 딸 2명과 아들 1명을 두었다. 생활력이 매우 강하고 Ct부와 Ct1,2에 대한 집착이 있는 편이다. 15년 전 남편의 사망 이후 Ct부의 양육과 Ct1,2양육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시장에서 야채가게를 하고 있다. 청각장애가 있으며 당뇨가 심하다. Ct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받기도 한다.

Ct부의 아동기 때, Ct조부로부터 Ct부가 신체적 상해를 받을 때 Ct부에 대한 보호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Ct조부에 대한 방어적인 역할을 하였다. Ct부 및 Ct1,2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편이다.

③ 가족력

Ct조부는 Ct조모와의 사이에서 1남 3녀를 두었다. Ct조부는 평범하고 성격이 무난한 편이었으나 술을 마시면 Ct부를 집중적으로 구타하였다고 한다. 경제적인 능력은 Ct조모가 비교적 강한 편이다

서 야채가게, 음식점 등을 운영하여 Ct부를 포함한 1남 2녀를 양육하였다.

한편 Ct부는 Ct조부의 일방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으며 Ct부가 청소년기가 지난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Ct조부를 상대로 자주 음주 및 구타행동을 하였다. 이를 만류하는 Ct조모를 자주 구타하거나 밀쳐내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Ct부는 83년경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Ct모를 만나 결혼하였으며 제주도로 이사를 와 Ct1,2를 출산하였다. Ct모는 서울 출신으로 Ct부를 따라 제주도에 왔으나 제주도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Ct조모는 70대 중반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Ct부로 인해 현재 동문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으나 심각한 당뇨와 청각장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Ct조모의 청각장애는 Ct부의 음주 및 구타문제로 인한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Ct부는 간헐적으로 종이 박스를 수거하는 등의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으나 가계를 지원할 만한 능력은 부재하였다. 가족들도 Ct부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 및 음주후의 무차별적인 폭력을 지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Ct1은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이며 교내에서는 내향적이고 별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성적은 중상정도라고 하였다. Ct부모의 이혼 후 Ct부의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해진 후부터(99년경) 학교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Ct2는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이며 교내에서는 외향적이고 문제행동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 청각장애가 있는 Ct조모에 대해 지지적이며 가정문제 해결에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성적은 상 정도라고 한다.

④ 가족기능 및 가족체계

Ct가족은 노령과 병약한 Ct조모가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t조모가 경제적으로 Ct1,2를 지원하며 Ct모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Ct부의 가정폭력에 대항할 수 없으며 Ct1,2를 보호하고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98년 이혼 후 가출한 Ct모는 Ct가정과 전혀 유기적이지 않으며 현재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의 문제 해결에 전혀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Ct들의 친인척은 Ct부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문제와 관련,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으나 Ct1,2들의 피신처 역할을 해 주고 있다. 또한 모가 부재한 한부모가정인 Ct가정에 있어 모 역할 대행적 기능(maternal function)을 수행하고 있었다.

Ct부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부재하였다. Ct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Ct모의 부재로 가정내 위기에 대한 대처가 기민하지 못하였다.

● 다세대적 치료 접근

① 학대자 : Ct부

△ 해석 : Ct부는 심각한 알콜증세가 있는 Ct조부에 의한 신체적 · 정서적 학대를 장기간 받아온 피학대 개인력이 있다. 또한 Ct조부도 생존시 장성한 Ct부로부터 잦은 구타를 당하였다. 부모와 자식간에 상호 학대경험을 한 셈이 되었다. 감정과 사고의 분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구분할 수 없는 Ct부는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지적 체계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원가족과의 융합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악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자신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한다. 이처럼 폭력가정에서 자란 Ct부는 폭력의 양상을 이어 받음으로써 스트레스와 불안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Ct부는 Ct모와 결혼하였으나 Ct가 중2 때 이혼을 함으로써 원가족과의 감정적 미분화상태가 부부관계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을 초래하였다.

△ 치료 : Ct부의 내면에 뿌리 박힌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역할극을 통해 정화시키며, 원가족과 아내와의 감정적 융합 및 자아분화수준을 규명함으로써 그러한 감정이 피학대자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다세대를 통한 가족의 전이관계가 현재 나의 가족에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하게 하므로 세대간의 과정을 인식하도록 한다. "당신의 부모 가운데 누가 당신과 비슷한 행동을 했으며 이런 행동을 당신자녀에게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는 "당신의 원가족에서 이루지 못한 무엇을 지금 자녀를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Ct부로 하여금 자신의 원가족과 자신 그리고 자녀를 연결하는 관계 형태를 이해하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던 가족의 투사과정이 화를 내는 방식, 회피하는 방식, 감정적으로 단절하는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탐색할 수 있다.

② 피학대자 : Ct1~Ct2

△ 해석 : Ct1과 Ct2는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갈등관계이므로 쉽게 삼각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Ct1과 Ct2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한 상태이고 부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그들에게 투사하면 그들은 부모를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했을 것이다. 이처럼 삼각관계에 휘말린 Ct1과 Ct2는 늘 부모의 불안과 문제를 생각하고 자신의 발달과 자신의 욕구충족은 뒤로하고 융합된 삼각관계에서 부모의 근심걱정과 욕구에만 맞춰야 한다. 그리고 자아분화수준과도 연관시켜 보면, Ct부와 강한 감정의 융합상태이므로 자아분화수준이 떨어져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 못한다.

△ 치료 : Ct1과 Ct2는 모두 어리고 Ct부로부터 강한 신체적 학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학대자인 CT부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Ct1과 Ct2가 어리기는 하지만 부모의 감정체계로부터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자아분화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별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 또한 Ct1과 Ct2 자신이 어떤 점에서 Ct부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지를 자신들의 생활태도 또는 성격에서 자각할 수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집단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여 가족상호간의 이해와 기능적인 애정관계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족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가족의 새로운 풍습을 시도해 보거나, 일을 분담하는 등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체험하게 한다.

③ 그 외 가족구성원 : Ct조모

△ 해석 : Ct조모는 Ct조부와 Ct부와의 관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늘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남편인 Ct조부가 심각한 알콜증세인데다 자식인 Ct부를 구타하고, Ct부가 성장해서는 Ct조부를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Ct조모는 Ct조부와 Ct부 모두에게 강한 감정적 융합을 이루고 있으나 자신이 가족을 책임져야한다는 것 때문에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을 죽이고 자녀들을 보호하려하였다. 이 가족집단에서는 유일하게 자아분화가 된 구성원이므로 비록 나이가 많으나 가족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치료 : 우선 Ct조모 내면에 형성된 Ct조부와 Ct부, 그리고 Ct1과 Ct2와의 감정적 융합을 인식하고, 이를 대화를 통해 정화시키며, 자신의 역할이 가족구성원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Ct조모 자신의 가족과의 감정적 융합이 오히려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자각하고, 구성원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자유로울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Ct조모는 노령으로서 가족의 기둥역할을 한 점을 인정해 주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안식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V. 가족구성원의 역할

대체로 아동학대가족은 가족구성원 자체가 긍정적 삶의 기능을 상실한 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치료자가 가족구성원들

의 자아분화 및 융합의 정도, 삼각관계, 원가족과의 감정체계, 자녀의 위치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적절한 조정자가 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주제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할에서 가족구성원이란 학대자와 피학대자, 그리고 이들과 함께 호흡을 나누며 직 · 간접적으로 학대자 또는 피학대자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치료자는 이러한 가족구성원에 개입하여 구성원 개개인이 상호 역동적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를 도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치료자의 도움을 받아 참여하는 가족구성원의 역할이다.

첫째, 학대자의 내면에 뿌리 박힌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피학대자에게 관련짓지 않도록 한다. 대체로 그 역할의 중심은 실제로 아동학대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게 있다.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감정은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데,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어 결국 가족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둘째, 부모와의 감정적 단절은 세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 관계에서 감정적 단절이 강하면 그만큼 융합이나 미분화의 정도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융합에 의한 부모의 문제는 자녀에게 다시 투사되고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부부갈등에 따른 문제에 자녀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원가족과 감정적인 단절을 회복하며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피학대자가 학대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자아분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피학대자인 자녀는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체계에 영향을 받는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부모의 감정체계로부터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지만 이 순간 부모와의 정서적인 관계에서 자아분화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학대자의 개별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접근은 피해자의 문제 증상보다 가족의 감정체계가 문제라고 보는 데서 출발하므로 가족의 고질적인 감정체계와 심각한 삼각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감정적 융합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그 외 가족구성원은 가족 내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른 구성원이 어떤 결과나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꾸준히 행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과거에 쌓인 감정들이 하나 하나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면서 '나는 왜 저것을 갖고 싶어할까? 나는 왜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면 평화가 올까? 저것을 내 소유로 만들면 더 자유로워질까?" 하는 식의 질문을 던진다면 보다 더 확실하게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째, 가족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변화된 과정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치료자는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족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방식, 가족의 새로운 풍습의 시도, 일의 분담 등 가족들이 변화에 노출되는 체험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한다. 구성원들은 변화된 체험으로 더욱더 분화된 자기 감정표현이 가능하며 다른 가족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고 자신의 신념에 일치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세대적 치료접근을 시도해 보았고,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다 확대된 접근을 위해서는 아동 자신이 안고 있는 학대요인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비록 나이가 어려서 부모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아동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부모나 그 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학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Bowen의 다세대적 치료접근이 보다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례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주애(1998). 친부에 의한 성폭행, **아동학대 사례연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김순실(2002). 만성 알코올 중독母에 의한 아동 방임사례, **제주도 아동학대 사례연구 1집**,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제주도 아동학대예방센터.

김영례(2001). 친부에 의한 성학대, **아동학대 사례연구**, 한국복지재단

김용태(2000). **가족치료 이론**, 학지사

김지연(2002). 성학대 피해 아동 사례, **제주도 아동학대 사례연구 1집**,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제주도 아동학대예방센터.

김혜숙(2003).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학지사

김현옥(2002). 알코올중독 아버지로부터 장기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사례, **제주도 아동학대 사례연구 1집**,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제주도 아동학대예방센터.

노정윤(1994). **아동학대의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문희영(2002). 친부에 의한 신체적 학대 및 방임으로 고통받은 아동에 대한 사례, **제주도 아동학대 사례연구 1집**,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

박광만(2002).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개입사례, **아동학대상담사례연구집**, 서울시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최정호(2002). 부모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가족개입 사례, **아동학대상담사례연구집**, 서울시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허경미(2002).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 사례, **제주도 아동학대 사례연구 1집**,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제주도 아동학대예방센터.

홍강의, 곽영숙(1989).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아동학대**, 아동학대예방협회.

황학구 역(2003). **요가의 길**, 황금꽃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tice of psychotherapy. *Family Therapy*,(ED.), New York, Gardner Press

Gil, D. G.(1971).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 Family* Vol. 33. p.692.

Faller, K.C.(1981). Social Work with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A Manual of Interdisciplinary Practice. New York: Free Press

Hall, C. M.(1991). The *Bowen Family Therapy* and Its Uses, Northval and London, Jason Amson Inc.

Lewin, K.(1942). Field theory and learning, In 41st. book of N.S.S.E.2, *The psychology of learning.*

<Abstract>

The Roles of Family Members for Preventing Child Abuse

Prof. Park, Tae Soo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Bowen's approach of family therapy for preventing child abuse and grope for the roles of family members by trying the approach of parents-centered multigenerational therapy to some cases of child abuse.

Bowen(1963)'s approach of multigenerational family therapy is to find a solution to what makes the inverse functional pattern of the past and present and maintains it, further from the viewpoint of personal symptoms being caused by the change of interaction within a family. Therefore, the relation network with an original family as well as a personal nuclear family are emphasized. Most people live independently leaving their parents, but unresolved feelings or emotional responses with their parents occur again within their nuclear family as a repeating pattern.

Bowen(1976) suggested the major concepts of the approach of multigenerational therapy such as differentiation of self, fusion, triangles, nuclear family emotional process, family projection process, multigeneration transmission process, sibling position, and emotional cutoff.

The process of Bowen's multigenerational therapy helps a family escape their worries caused by emotional fusion and their triangle relations entangled within the family. The family therapy is mostly interested in how to decrease worries and tension and how to increase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Therefore, therapists should focus on the multigeneration-centered approach and assume that nuclear family's problems are emotional fusion in the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transmitted to parents and then parents project it to their children. In the process of treatment it is necessary to expand an original family, increasing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by resolving the broken emotional process of parents and grandparents or their triangle relations and preventing

its repetition in a nuclear family.

When this is considered, this study as a practical approach for preventing child abuse, which views the family therapy approach for preventing child abuse as nuclear family members, suggested two cases of child abuse about abusee and abuser and the contents related to other family members with the case overview, personal history, family history, family function, and family system.

This therapeutic approach assumed that as the child abuse family members themselves lost their positive function of life and had a difficulty in performing their roles, they asked the help of a therapist. Therefore, the therapist, as a good coordinator, should correctly understand the degree of self-differentiation and fusion of family members, triangle relationship, emotional system with the original family, and sibling position. The therapist interrupts the family members, helping each family member know how to participate in the dynamic process of interrelation.

In short, the roles of family members for preventing child abuse with the help of a therapist are as follows:

First, be aware that the emotions deep inside abuser's mind are formed in his or her original family relationship, and do not relate them to an abusee.

Second,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emotional break with parents strengthens the degree of fusion or undifferentiation continuously occuring through generations

Third, the degree of self-differentiation increases as an abusee becomes independent freely from an abuser.

Fourth, family members faithfully perform their given roles in their family.

Fifth, family members hav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e process of some changes for themselves.